








 <p>이경심</p>	<p>1969~1975년 JOC 활동. 1975년 동일방직 투쟁지원 1976년나마진 신부, 권조희 수녀와 부평노동사목 공동설립 1979. 6. 14 운명, 당시 33세 천주교 백석 하늘의문 묘원에 안장</p>	 <p>정성희</p>	<p>1981년 연세대 입학 1982년 11월28일 강제징집 됨 1982년 1월 4일 자대배치, 이후 학원소요 관련자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옴 1982년 7월2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</p>
 <p>변형진</p>	<p>1985년 삼환택시 입사 1986년 2월 22일 부당해고 통고, 4월 30일까지 출근투쟁 1986년 4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회사 앞에서 분신 1986년 5월 1일 운명</p>	 <p>신호수</p>	<p>1963년 8월 8일 전남 여수 출생 1986년 6월 11일 인천시 소재 연안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서부경찰서형사들에 연행 후 행방불명 1986년 6월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 서 변사체로 발견. 당시 23세. 광주 망 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</p>
 <p>이대용</p>	<p>1977년 인천 선학알미늄 입사 1986년 동양튜브에서 임금인상 쟁취 투쟁 1982년 11월28일 강제징집 됨 1987년 8월 1일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 회 참여, 물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고 운명</p>	 <p>유인식</p>	<p>1986년 샘터교회 청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1987년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대표자 회의 성원, 6월 대투쟁 적극 참여 1987년 8월 1일 사랑방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, 물 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고 운명</p>
 <p>김현욱</p>	<p>1985년 진흥요업 근무 1986년 해군 방위병으로 입대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 적극 참여 1987년 8월 1일 사랑방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, 물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고 운명</p>	 <p>박용선</p>	<p>1985년 한국릴레이 근무 1987년 백마교회 문화잔치 2기생 졸업 1987년 8월 1일 백마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, 물 에 빠진 동료들을 구하고 운명</p>
 <p>김성애</p>	<p>1986년 7월24일 진흥요업 입사(인천 남구 신기촌) 1986년 9월12일 진흥요업에서 작업 중 화공 약품에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 1987년 11월 3일 산재 중앙병원에서 산재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신, 운명</p>	 <p>심재환</p>	<p>1984년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회장, 인문대학 학생회장 1986년 소규모 사업장의 프레스공으로 입사 1987년 2월 인천 청천동 소재 삼화실업에 취 업하여 노동운동 1987년 12월15일 부평 산곡1동 자신의 자취 방에서 의문의 죽음</p>
 <p>김장수</p>	<p>1987년 6월15일 인천 경기교통노조 조합장 활동 중 해고 1988년 3월 1일 부당해고 항의하며 단식농 성 중 분신 1988년 3월 9일 전신 70%, 3도 화상입고 오후8시15분 운명</p>	 <p>송철순</p>	<p>1987년 1월 세창물산 입사 1988년 6월29일 노조 창립과 함께 사무장으 로 선출됨 1988년 7월15일 '파업기금마련 연대집회' 준 비로 공장 지붕위에 현수막 설치 중 추 락. 17일 운명</p>

 <p>강석태</p>	<p>인천가톨릭 노동청년회(JOC) 회장 활동 1985년 동흥전기 해고, 이후 노조 창립발기인 활동 1988년 10월22일 교통사고로 부천 대성병원에서 운명</p>	 <p>최완용</p>	<p>1983년 인천에서 공장생활 1989년 계양구 박촌동 소재 흥업사에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함 1989년 4월 9일 부평 철마산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열망하며 분신</p>
 <p>조정식</p>	<p>1984년 7월 인천 범아산업에 취직 1986년 5월 인천 진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시작함 1987년 11월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, 3년형 선고받음 1989년 5월10일 영전기계에 취업 1989년 5월24일 오후3시경 공장에서 산재로 운명</p>	 <p>강현중</p>	<p>1987년 12월 5일 경동산업 입사 1988년 5월 4일 친목회 '디딤돌' 구성하여 회장으로 활동 1989년 8월31~9월 4일 회사의 부당징계조치에 항의농성 1989년 9월 4일 노무이사와 담판 결렬되자 분신 1989년 9월 9일 한강 성심병원에서 운명</p>
 <p>김종하</p>	<p>1985년 인천 경동산업 입사 1989년 4월 임금인상 대책위원으로 활동 1989년 8월31~9월 4일 회사의 부당징계조치에 항의농성 1989년 9월 4일 노무이사와 담판 결렬되자 분신 1989년 9월15일 한강 성심병원에서 운명</p>	 <p>백인호</p>	<p>고교 졸업 1984년 11월 1일 동흥전기 입사 동흥전기 노조 사무장 활동 1989년 9월15일 조합원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로 운명</p>
 <p>이재호</p>	<p>1988년 1월 협신사 입사 1989년 10월29일 노조재건을 위해 동료들과 '등불회'를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 중 의문의 피살을 당함</p>		